

## 효과적인 영어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박 창 옥\*

### A Study on Effective Ways for Improving English Listening Ability

Chang Ok, Park\*

#### 요 약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은 듣기와 말하기 같은 실용적 언어 기능보다는 쓰기와 읽기 같은 수동적인 언어기능 위주로 교육이 진행 되어왔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학생들이 영어 교육을 받은 기간이 비교적 긴 기간에 비추어 볼 때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언어구사 능력을 갖추게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어 듣기 지도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 Abstract

This study was focused on finding an effective way for improving English listening ability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Office Automation at Dong Seoul College. In order to achieve the best method,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heories and the teaching techniques of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In this regard, ToEIC test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is study suggests that various listening experiences should be given to the student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listening comprehension for communication.

---

\* 동서울대학 사무자동화과 부교수

것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고려하였다.

## I. 서론

영어는 세계의 공통 언어로서 세계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다. 영어를 통하여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청취력의 향상이 첫 단계이다. 외국어를 청취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한국과 영어 사용 국간의 문화적인 배경이 상이하고 어순이 우리 말과 다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전반까지 우리 나라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청취력 교육을 매우 소홀히 하여 왔다. 그러나 1982년 후반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 능력을 평가한 바 있고 그 후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연합고사나 대학입시인 수능고사에서 영어 듣기 능력 평가가 반영되었으나 관심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영어교육은 Audio-Visual Machine이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 학습 보조 도구의 눈부신 발달은 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고교영어 교육은 LAB에서 실용영어와 회화를 가르치기보다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입시위주의 독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임으로, 실제로 중·고등학교 6년 동안에 녹음Tape나 Videotape를 통하여 받은 시청각 교육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한학기내지 두 학기의 수업을 통하여 청해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기는 매우 힘들다. 이 논문에서는 본 대학 사무자동화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사무자동화과 2학년 학생 A·B반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시사영어사에서 출판한 시사 Elite ToEIC 교재로 매주 50분씩 Tape를 듣고 학습을 한 후, 다음주에는 수업시간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시험을 치루어 성적을 비교해 보았다. 시험 문항은 20내지는 30문항정도로 하였으며, 시험의 내용은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level이 비슷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처음 학습시에는 같은 내용을 여러번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시험시에는 한번만 듣는 것으로 하였다. TAPE의 속도는 항상 정상속도에 익숙해지도록 정상속도로 틀어주었다. 전체 8번의 시험을 보았으며 시험문제 난이도가 있는

## II. 영어 청취능력(Listening Comprehension)은 왜 필요한가?

사람이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Message)를 잘 듣고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청취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네 가지의 기능 중에서 듣기는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할 기능이다. 듣기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에 상대방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사소통 방법은 매우 즉흥적이고 순간적이며, 일시적이므로 청취하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취력은 말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기능이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의미나 의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런 의미에서 외국어 학습시 먼저 듣기 기능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 2.1 청취능력 Test

영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지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취력 학습의 목표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발음, 낱말, 문장, 구조, 억양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세부능력의 학습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학습은 다시 말해 청취력의 배양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나라 영어 교육의 목표는 회화 청취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취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수가 할 일은 학습자들에게 세부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청취연습을 통해 청취력을 기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2.2 청취교재의 선택과 내용

현재 시중에 소개되어 있는 교재들은 교재구성이나 수준, 내용면에서 약간씩의 차이점은 있으나 모두 청취력을 기르기 위한 공통의 목적과 원리를 갖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사 영어사에서 출판된 '시사 엘리트 ToEIC' 실전 테스트 시리즈를 교재로 선택하였다.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학습목표와 구성, 내용등을 고려할 때 비록 다른 교재와의 장·단점은 있을지라도 영어학습자의 목표인 일상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고, 시험시의 간단한 지시사항이 영어로 되어 있으며, 내용이 일상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듣고 익히게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어 변별력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며, 교재의 부피가 적어 학습자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고 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 위한 교재로써 적절하기 때문이다.

## 2.3 학습방법과 실제 Test 과정

학습을 하기전 학생들의 그간의 영어 학습 과정을 알기 위하여 수업시간에 간단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이 ToEIC 시험을 외부 기관에서 응시해본 일이 없으며 ToEIC 공부해 해본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시험을 치루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항의 문제를 외국어로 듣고서 즉시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에 익숙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대다수의 학생들 중 ·고등학교에서 영어듣기 평가시험을 통해 청취력 테스트가 전혀 낯설지는 않으나 많은 문항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등을 접해본 경험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다.

학습방법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매주 50분씩 Tape을 듣고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았으며 다음주에는 10~15분정도의 Test를 하였다. 교재는 각 권이 Part I에서 Part IV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I은 그림을 보고 그림의 내용을 적절히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총 20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II는 짧은 질문을 듣고 (A)(B)(C)세개의 문항 중에서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이다. 질문과 답이 모두 영어로 주어지며 답이 written English로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How are you?"라는 질문이 나오면 (A) "I am fine, thank you." (B) "I am a student." (C) "I am very

tired."라는 세 개의 answer가 나오며 답은 (A)가 되는 것이다. Part II는 문항이 30개로 구성되어져 있고 회화형 문제이다. Part III에서는 30개의 대화문을 듣고 정답을 (A)(B)(C)(D) 중에서 찾는 것이다. 대화는 교재에 나와있지 않으며 정식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한번만 듣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업시간에는 반복 학습을 하여 대화의 내용을 학습한 후 정답을 고르는 훈련을 하였다. Part III는 Part II보다는 난이도가 있으며 정신을 집중하여 대화를 듣지 않으면 내용을 놓치기 쉬어 Part II보다는 여러번 반복학습을 하였다. Part IV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항은 20개이나 내용이 길며, 단어도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 몇 개의 짧은 설명문이 나오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2개 혹은 3개의 질문이 나온다. 각각의 질문 뒤에는 네 개의 짧은 답이 나오는데 이중 맞는 답을 고르는 것이다. 네 개의 답은 역시 Written English로 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은 3월 2째주 수업시간에 Full test를 받았으며 test는 시사토익 book 10에 나오는 문제 중 듣기부분 Part I부터 Part IV 까지였다. 시험성적은 전체 100문항 중 2-A반 평균 52점, B반 48점이였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Part I의 그림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답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20문항 중 최고 17문항까지 맞은 학생이 각반에서 10여명이 넘었으며, 가장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은 최하 3점이고(1문항을 1점으로 계산) 6개내지는 7개 문항을 맞은 학생들도 각반에서 10여명 가까이 나왔다. Part II는 회화형 문제로 문항은 3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A, B, C 세 개의 답 중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How are you?"에서 (A) I am fine, thank you. (B) I am tired. (C) You are welcome.중 답은 (A)가 되는 것이다.

답 (A)(B)(C)는 물론 쓰여져 있지 않고, 듣고서 맞는 답을 고르게 되어 있다. Part II의 평균 성적은 A·B반 모두 18점이였다.

Part III는 30개의 짧은 대화를 듣고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이며 대화는 쓰여있지 않으며 학생들은 질문과 (A)(B)(C)(D) 네 개의 짧은 답을 읽고서 정답을 고르게 되어 있다. 질문은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된다.

ex. A : Are you coming to lunch with us?

B : Sorry, I can't, I have to meet Melvin for lunch.  
 A : OK. See you later then.

번역 A : 우리와 함께 점심 식사하러 가실 수 있겠어요?  
 B : 미안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멜빈과 만나  
 점심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 : 좋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여기서 학생들은 "What's the woman going to do?" 라는 질문을 written English로 읽게되며  
 (A) She's going to meet Melvin.  
 (B) She's going back home  
 (C) She's not meeting someone else for lunch.  
 (D) She's going back to the office.

중에서 정답을 고르게 된다. Part III의 대화는 Part II의 회화형 문제보다는 좀더 Listening에 있어서 고도의 훈련을 요하는 문제로, 대화가 속도감 있게 일상대화에서 말하는 속도로 진행되므로 학생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이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여 즉시 정답을 찾아야 한다.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 Part III의 test에서 학생들은 30문항 중 평균 13문항을 맞추었다. Part IV는 몇 가지 짧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Part IV는 앞서 Part I~Part III까지의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로 필기시험의 독해력 test와 비슷하다. 필기시험에 해당되는 지문은 영어로 녹음된 이야기인데, 일기 예보라든가, 시사성이 있는 문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나오며 1개의 이야기에 따라 나오는 질문은 통상 2개에서 3개정도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Part IV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의 예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

Our operational costs increased by about 3.7 percent. But this is only because we actually grew bigger compared to last year. The most notable change is that we expanded our production plant by nearly forty percent and hired thirty more workers. In spite of the

increase in costs, our profit margin remained the same. The new product seems to have kept us up.

번역  
 우리의 운영 경비가 약 3.7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우리가 실제로 더욱 성장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우리가 생산공장을 거의 40퍼센트 정도 확장했고 30명의 노동자를 더 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경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윤 폭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 상품도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줄 것 같습니다.

질문

1. What is this report about?  
 (A) The newly built factory.  
 (B) The newly hired workers.  
 (C) The company's performance.  
 (D) The new products.
2. What happened to the profit margin?  
 (A) profits dropped.  
 (B) A loss was registered.  
 (C) We can't tell.  
 (D) There was no change.
3. Which one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true?  
 (A) The company expanded its operational scale.  
 (B) The company fired thirty workers.  
 (C) The company hired a new manager.  
 (D) Profits remained the same while costs fell.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은 1번(C) 2번(D) 3번(A)이다. Part IV에서는 7개의 이야기와 이에 따라나오는 총 20개의 질문이 있는데 예문에서 본바와 같이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Part IV에서는 평균 5~6점밖에는 득점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미루어 보건데 학생들이 듣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짧은 대화보다는 서술형의 긴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해보는 학습방법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들은 내용을 한 두 가지씩이라도 요약함으로써 듣는 훈련을 강화시키고 각자 들은 내용을 우리말로 이야기 해 보게 하고 다른 학생이 들은 내용과 내가 들은 내용을 비교해 보고,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III. 시험일정 및 결과

시험일정은 98년도 9월 2째 주부터 시작하였는데 2째 주에는 시사 Elite Toeic book 10을 Full test로 보았다. Full test란 듣기 평가 Part I에서 IV까지를 모두 본 것으로 소요시간은 50분이었다. Full test를 본 이유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향후 학습 계획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Full test의 성적은 총 100문항 중 1문항을 1점으로 계산하였을 때 A반 평균 52점, B반 48점이었다.

학생들은 Part I보다는 Part II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Part III와 Part IV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고 특히 Part IV에서는 2~3점밖에 득점하지 못한 학생도 상당수 있었다. Full Test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3주에는 (9.13~19日) Test#1을 시행하였으며 교재 9권을 갖고 하였다. 9권의 Test#1은 그림설명 문제로서 이 시험을 치루기에 앞서 학생들은 제 5권과 6권에 나오는 같은 유형의 문제 40개를 풀어보고 정답을 맞춤과 동시에 그림의 내용을 설명한 (A)(B)(C)세개의 영어문장을 프린팅한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틀린 답이 왜 틀렸는지를 익히고, 그림을 설명한 녹음 내용을 3~4번 반복하여 들음으로써 이런 유형의 문제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9월 4주(26~29日)에서는 Test에 앞서서 Part II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를 Book 3,4를 가지고 선행학습 하였으며 나중에 치른 Test#2에서는 Book9를 가지고 하였다. Part II는 학생들이 비교적 높

은 점수를 받은 부분으로써 Test # 2를 통하여 A반은 평균(1문항을 1점으로 하였을 때에 30점만점)17점, B반 19점이었다. 특히 PartII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질문을 특히 잘 들어야함에 유의하였으며 문장의 시제(tense), 의문사(what, where, when, who)등을 잘 들어야 함과 동시에 how much, would you like, can you, 혹은 could you, May I 등 답을 유도해주는 문장의 서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9월 5째주에서는 test#3을 시행하였는데 시행하기에 앞서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Part III에 나오는 Short Conversation을 듣고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다. 들은 내용은 주로 BOOK 1~5까지의 교재를 이용하였다. Part III에 나오는 conversation을 두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ex. 1. A : What time is breakfast here?  
 B : You can have your breakfast anytime between 7 and 9.  
 A : That's very convenient indeed.

- ex. 1의 문제는 How long is breakfast served for? 이며 답은 (B)이다.  
 (A) Seven hours  
 (B) Two hours  
 (C) Nine hours  
 (D) At seven

- 번역 A : 여기서는 아침식사가 몇시인가요?  
 B : 7시에서 9시 사이에 언제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A : 상당히 편리하군요

- ex. 2. A :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to have?  
 B : I want something light. What do you want?  
 A : I was thinking of some burritos.

- ex. 2의 문제는 What are the man and women going to do? 이며 답은(B)이다.  
 (A) They are going to a football game.  
 (B) They are going to go to a

restaurant.

(C) They are going to go to the airport.

(D) They are going to the movies.

번역 A :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B : 전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걸 원하세요?

A : 저는 뷰리토를 먹을 생각 중이었습니다.

Test #3에서는 각반의 평균점수가 A반 14점 B반 16점이었으며(30문항으로 1문항에 일점씩으로 하여) 10월 2째주에 행한 Test#4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Test 하였는데 Test#4와 점수에 큰 차이는 없었다. 10월 4째주(25-31일)에는 Test#5를 시행하였으며 시험 내용은 Part I과 Part II Part III에 나온 같은 유형의 문제를 택하였다.

Part I은 평균 점수가 20문항기준으로 A반 17점 B반 16점으로 약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Part II와 Part III에 나오는 같은 유형의 문제는 앞서의 평균점수와 대동소이 하였다. 11월에는 집중적으로 Part I(그림 묘사), Part II(회화형 질문), Part III(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기), Part IV(서술문을 듣고 2~3개의 질문에 답하기)의 문제를 시사 Elite Toeic외의 다른 교재(주로 사용한 교재는 김재호 TOEIC, 등)의 듣기 부분을 발췌하여서 듣기 훈련을 하였다. 11월 1주에 시행된(1~7) TEST#6에서는 Part IV에 나오는 같은 유형의 서술문을 듣고 질문에 답하기 시험을 보았는데 결과는 A반 7점, B반 8점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그 이유는 PartIV에 나오는 문제가 내용이 길고 어휘도 어려운 것이 많아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본다. 11월 2째주 시행한(8~14日) Test#7에서도 Part IV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시험 보았으나 결과는 대동소이하여 단 시일 내에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였다. 11월 3째주(15~21日)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하여 Test#8을 시행하였는데 결과는 Part I과 Part II는 점수가 평균 5~6점 이상 높아졌으나 Part III와 Part IV는 여전히 상당수의 학생이 낮은 점수 분포도를 보여 Part IV는 점수를 단시일 안에 높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1월 4째주(22~28日)에서는 지금까지의 7차례의 Test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2차 Full Test를 시행하였

다. 마지막 Full Test는 외부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을 보고 성적을 처리 하였는데 L/C만 500점 만점(총 100문항이며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다름)에 A반은 응시인원 58명중 148.1점 이었다. B반은 응시인원 57명중 평균156.6점 이었다. 이 점수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L/C에 있어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평균 30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가장 취약한 점은 서술문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Toeic 교재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Listening Tape을 많이 듣고서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IV. 효과적인 듣기 방안연구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가 강조되면서 나타난 교수법들이 듣기를 위한 기법들을 창안하고 권장하였다. 최근에는 듣기의 중요성이 재강조되면서 많은 새로운 교수법들이 개발되었고 소개되어진다. 과거에는 듣기 기능을 말하기를 위한 보조기능으로 여겼으므로, 듣는 즉시 모방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암기하게 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대두된 의사소통 기능에 힘입어, 언어에 대한 지식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언어사용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서 듣기 이해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구어의 듣기 이해력을 먼저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듣기 中心의 언어교수이론의 장점은 우리 나라와 같이 원어민 접촉이 적은 영어 학습 상황에서는 듣기 중심의 교수방법이 의사소통 능력에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영어 듣기지도 방안은 주로 전통적인 문법설명·번역·청취에 따라 실시되었다. 전통적인 영어실습 수업 형태는 교재를 단원에 따라 듣기·따라하기·문제풀기·설명듣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듣기지도를 위해서는 영어실습 집단의 실제 교실수업에서는 근본적으로 즉각적이고 정확한 말에 지도의 초점이 맞추어 져야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는 보통속도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의 말이 시청각 자료로 쓰여져야

한다. 영어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요구되는데 첫째는 교재에는 반드시 대화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native speaker들의 대화를 먼저 듣고 따라하며 모방에 의한 발음습득을 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둘째는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Key Structure)구조들은 숙지되어야 하며 이때 주로 pattern들과 문법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필요하다면 문법적 설명이 부여될 수 있다. 셋째는 대화에 기초한 어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듣기 지도 방안에는 50분 수업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① 듣기단계(30분) ② 연습단계(10분) ③ 정리단계 (10분)으로 하였다. 첫째 듣기 단계에서는 대화문을 많이 듣는 것이 좋다. 이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수업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집중적인 듣기 훈련연습을 한다. 구문에 대한 다양한 훈련, 문형훈련, 반복훈련 등을 실시한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연습시킨다. 대화문은 그과의 초점인 주요 구조를 포함하므로 교사는 구어적 문형을 연습시키며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대화문을 따라한다. 교사는 발음, 억양에 주의를 기울이며, 학생들의 실수는 즉시 설명과 더불어 교정해 주어야 한다. 이 연구의 실험 집단은 종래의 영어 수업 방법과는 달리 좀더 다양하며 능동적인 듣기 이해력 학습을 위한 일련의 듣기이해력 연습활동을 실시하였다. 보다 효과적으로 듣기 지도를 하기 위하여 듣기 전 활동, 시청각 자료 제시 방법, 어휘 제시 방법을 활용하였다.

#### 4.1 듣기 전 활동

듣기 전 활동(pre-listening activities)은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학습 중재역할로써 듣기 활동에 도움을 준다. 듣기 자료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어렵다고 예상되는 새로운 어휘나 구문을 교사가 설명 해주든가 또는 사전질문 형식을 활용하여 듣기 대상의 자료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미리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듣기 내용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 수업에서는 듣기활동과 더불어 시각자료 제시 방법과 어휘제시 방법을 사용하였다.

#### 4.2 시각 자료 제시 방법

실제 의사 소통에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는 문화적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좀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시각 자료의 보충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video tape를 활용하여 audio tape가 갖는 지루함을 간간히 해소하였다.

#### 4.3 어휘 제시 방법

외국어 학습자들은 평소에 교실에서 배워 알고 있는 어휘도 모국어 화자의 발음을 듣게 될 경우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 어휘에 대한 두려움이 듣기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어떤 단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들리는 정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생은 화자가 말하는 모든 것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나머지 들어야 할 부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뉴스나 드라마의 일부분을 듣고 들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게 함으로써 전체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몇 개의 청취 가능했던 어휘로 전체의 상황을 짐작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연습을 하였다.

### V. 결론

영어 듣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의사 소통 능력이 말하기 보다 듣기 능력에서 기인한다는 이론에서 출발한다. 듣기 향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수업을 시도해 봄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듣기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실생활에서 어떠한 듣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언어의 특징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전달 행위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언어 습득의 목적은 배우고 있는 언어의 모국어 화자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사 소통에 있다고 볼 때 말하기는 듣기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외국어 학습에서도 듣기를 중시하여 훈련시키고 듣기 능력이 어느 정도 길러진 후에 말하기 훈련을 시켜야 한다. 듣기 학습의 지속적인 반복은 학습자로 하여금 의사 소통

능력으로 근접케 하는 한 방법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원어민과의 접촉이 드문 학습 상황에서는 말하기를 위한 노력에 비해 듣기 중심의 영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은 의사소통 中心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회화 능력의 개발은 우리 나라 대학들의 영어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듣기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영역은 듣기 기능이며, 대학에서 영어 교육의 성공여부는 듣기 교육의 강화에 있다. 듣기교육은 단순히 말하기를 위한 듣기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야 영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본다. 의사소통 中心의 듣기 교육은 듣기 지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영어 듣기 지도에 관한 교수 방법의 개발과 동시에 다양한 듣기 연습활동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듣기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Teacher Trainees, Boston, 1980.

- [6] George Hughes, Teaching a Foreign Language, Lexington, MA: Ginn Custom Publishing, 1982.
- [7] 시사 Elite ToEIC 실전 테스트 시리즈 1권~9권, YBM 시사영어사, 서울, 1997.

### 저자 소개



#### 박창욱

1973년 성심여자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학사

198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어  
영문학과 석사

1985년 ~ 현재 동서울대학  
사무자동화과 부교수

관심분야 : 현대 영국문학,  
문학비평

### 참고 문헌

- [1] Blanton, L.L. "A Historic Approach to College ESL: Integrating Language and Content". ELT Journal 46(3), 1992, pp.285-295.
- [2] Bowen, Donald J., Harold Madsen and Ann Hilferty, Tesol-Techniques and Procedures, Rowley, MA: Newbury House publishers, 1985.
- [3] Gillian Brown, Teaching the Spoken Languag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54-101.
- [4] Nelson Brooks,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New York, NY: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1964.
- [5] Kenneth Croft, Readings o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For Teachers and